



거진읍 용하리(왼쪽)와 현내면 화곡리 야산은 지난 2009년 초지조성 허가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초지조성을 하지 않아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 소나무만 굴취해 팔고는 사업 미뤄

초지조성·축사신축 발미 산지전용으로 경관훼손 심각 ... 3년간 초지조성 허가 9건 중 3건만 조성

최근 들어 고성지역에서 축산용 초지조성과 축사 신축 등을 발미로 산지를 전용한 뒤 소나무만 굴취해 판매하고는 목적사업을 미뤄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사례가 많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성군과 지역 축산인들에 따르면 초지조성 허가를 받거나 축사 신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는 소나무만 굴취해 판매하고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신청지 실소유자 허가 원칙과 축산업 규모의 적정성 등 허가조건을 갖추기 위해 실제로는 외지인이거나 축산업을 하지 않는 주민이면서도 축산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허

가를 받는 등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성군에 따르면 최근 초지조성 허가 건수는 지난 2009년 3건, 2010년 6건 등 총 9건이지만, 이 가운데 실제로 초지를 조성한 곳은 3곳에 불과하다. 또 축사 신축을 위한 산지전용 허가 건수는 2009년 1건, 2010년 4건, 2011년 3건 등 모두 8건이지만 준공을 한 곳은 2건에 불과하다. 1건은 사업을 하지 않아 복구명령이 내려졌으며, 나머지는 추진중이다.

정부는 이처럼 초지조성이나 축사 신축 등을 발미로 산지전용을 한 뒤 소나무 등 입목만 판매하고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사례를 막

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있으나, 군에서는 관련 서류만 구비하면 허가를 내주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토지소유자와 관리자가 다를 경우 허가에 제한을 두고 있다. 또 동일 가축 사육경력이 5년이 안되거나, 성우를 기준으로 젖소는 15두, 한우는 20두가 되지 않으면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이율러 농기계 작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경사도 15도 미만의 대상지가 신청면적의 80% 이상이어야 하며, 사료작물의 정상적인 생육 및 생산량 증대를 위해 유효토심(효능이 있는 땅의 깊이)이 30cm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

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 꼼꼼하게 살핀 뒤 허가를 내줘야 하지만 실제로는 서류검토만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다.

특히 종전에는 초지조성이 이뤄질 경우 최소 허가 기간(보통 1~2년)과 동일한 기간을 1회만 연장해주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최근 규제완화 차원에서 연장신청에 제한을 두지 않아 초지조성을 미루는 사례가 더욱 빈번할 것으로 우려된다.

주민들은 지역의 귀중한 재산인 소나무와 자연경관을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외지인 또는 축산업을 하지 않는 주민의 대리인을 자처해 초지조성이나 축사신축을

신청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역 축산인들은 “현장에 나와 보면 급경사라서 초지를 조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도 허가를 내주는 사례가 많다”며 “반면 지역 축산인들에게는 까다로운 조항을 내세워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성군 관계자는 “민원인이 소나무만 굴취하고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의심할 수는 없으며, 관련 서류가 구비되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며 “특별한 이유없이 목적사업을 미루는 경우 사업추진을 재차 독려하고 계속 하지 않을 경우 복구명령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제24회 강원민속예술축제 고성명태바리 소리 공연 장면.

## ‘고성명태바리 소리’ 최우수상

제24회 강원민속예술축제 ... “강원도 민요 가운데 희귀해 전승 필요”

고성문화원이 사라져가는 명태 고장의 명성을 되찾고 주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만든 ‘고성명태바리 소리’가 지난 달 28일과 29일 이틀간 정선군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24회 강원민속예술축제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고성명태바리 소리’는 지역 특산물인 명태를 소재로 그물과

낚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바다에 나가 명태를 잡고, 항구로 돌아와 명태를 손질하고, 덕장에 말리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고성명태바리 소리는 심사위원들로부터 “강원도내에 흔하지 않은 뱃소리 가운데 하나로 어로 민속과 어업요를 흥겹게 재현하고 있으며, 강원도의 민요 가운데 희귀해 전승이 필요하다”는 평을 받

았다.

고성명태바리 소리는 박상록 죽왕면 수성문화제위원장과 김용경 경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의 지도로 과거 고성군의 명태바리 어로민속과 어업요를 재현한 것으로, 공연에는 고성문화원 민요교실 및 사물놀이 수강생과 동광산업과학고 학생 등 56여명이 참가했다. 최광호 기자